

◆연경사회문화정책연구네트워크 김영국 운영위원

# “정책대안 제시하는 단체 절실”

“불교계에는 사회 각 분야에서 불교를 비롯한 종교의 정책을 연구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단체가 절실합니다. 현안대응에만 급급해서는 불교계 입장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없습니다.”

불교계 연구네트워크가 창립을 눈앞에 두고 있다. 연경사회문화정책연구네트워크(이하 연사연)는 최근 개신교계 단체의 불교 폄하 광고를 반박하고 종교사학 예산지원 현황분석 결과를 제시하면서 모습을 드러냈다. 연사연은 7월 22일 발표에서 교육부가 국회에 제출한 종교사학 예산지원 현황을 분석하고, 현행 사립학교법에 근거한 현황을 밝히는 등 구체적인 연구 데이터를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대안 없는 목소리는 힘 없다

## 정부 종교 · 문화정책 분석 · 비판

‘연경사회문화정책연구네트워크’는 해인사 연경당에서 이름을 빌렸다. ‘부처님 경전을 정성들어 순수 연구한다’는 뜻과 함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을 불교계 입장에서 연구를 진행한다는 뜻이다. 종교사학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 현황에 이어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외교통상부 등 정부기관의 종교계 예산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 대부분의 정부부처에 대한 분석 보고를 전개해 나간다. 예산 지원 뿐 아니라 종교계 지원시 집행 명목과 방법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보고서를 제출한다. 보고서는 발표회를 열거나 상황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며, 정책적 대안에 대한 토론도 진행하게 된다.

현재 법대 스님을 고문으로 김영국, 서동석, 박종화, 이희선, 이영근, 김윤길, 이남재, 조환기,

송세연, 장성준, 이호윤, 우병기 등 12명의 운영위원으로 구성됐다. 또 스님, 교수, 국제연구기관 준공무원 등으로 연구원을 영입한 상황이다. 연사연은 9월 중 교육과학부 예산과 정책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연구결과를 발표함과 동시에 창립식도 계획하고 있다.

연사연은 불교계라고 무조건 지지와 옹호, 목소리를 대변하는 단체가 아니다. 김영국 운영위원은 “불교계에서도 문화재 관련 예산을 개인의 이익을 채우기 위해 사용하는 등 문제점이 발견될 때에는 분명히 밝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사연은 사회 각 분야에서 불교에 관심 있는 이들이 네트워크를 이뤄 공동연구를 진행한다. 김영국 운영위원 등 불교계, 정계, 학계 등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위원들은 “한 가지 사안이 발생하면 현안 대응에만 급급해 장기적인 대책이나 대안을 제시하지 못해 불교계의 입지는 좁았다. 현안이 발생하기 전에 정책대안을 준비하고 불교계의 목소리를 내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공감했다.

“정책적 대안이 없으면 일반 사회에서도 목소리에 힘이 실리지 않습니다. 참여연대가 힘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집단 의사표현에 그쳤던 시민운동에서 벗어나 정부 문제를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해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연사연은 기존 불교계에서 활동하는 대중불교 단체들과는 성격이 달라져 정부의 문화 · 종교정책, 종교관련 법제 등을 분석해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단체로 거듭나게 됐다. 연사연은 앞으로 콘텐츠 구축이 되면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할 계획이다. 특히, 소셜네트워크 등을 이용한 불교계 인재들의 정보공유도 기획 중이다.

이상연 기자

# 東大 승가 기본교육기관 제외 반발

## 석림동문회, 대책위 결성... 교육원, 대화해결 강조



7월 29일 동국대 정각원에서 열린 석림동문회 긴급 임원 간부회의 모습.

조계종 교육원(원장 현용)이 “동국대 승가 기본교육기관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동국대 석림동문회와 불교대학 교수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동국대 석림동문회(회장 영담)는 7월 29일 동국대 정각원에서 긴급 임원 간부회의를 열고 교육원의 승가 기본교육기관 조정안에 반대하며, “동국대 기본교육기관 제외 대책위원회”를 결성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의했다.

결성된 대책위원회 위원에는 보광 · 계환 · 장적 · 현도 · 토진 · 현조 · 석림동문회는 “조속한 시일 내에 교육원과 만나 동국대의 현대식 불교교육 방법이 종단 승가기본교육의 핵심 주요정책이 되도록 협의할 것”이라고 결의했다.

이어 석림동문회는 “내년에 완공될 서울 · 경기 캠퍼스의 최신식 기숙사에 올해 9월부터 선발되는

2011학년도 신입생 사미 · 사미니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전용공간 배치와 장학혜택을 대폭적으로 확대해 현대화된 승가교육의 전형을 마련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같은 날, 동국대 불교대학(원) 학사운영위원회(위원장 계환, 불교대학 학장도 긴급 회의를 열고 “교육원의 기본교육기관 조정안은 승가 교육 불사를 위해 100여 년간 노력해 온 동국대 불교대학의 존재 가치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교육원 안에 반대의사를 밝혔다.

불교대학(원) 학사운영위원회는 불교대학(원)장 및 불교학전공 · 인도철학전공 · 선학전공 등 전공 인과장, 불교대학(원) 학사운영실장으로 구성된 기구이다.

학사운영위원회는 8월 4일 ‘종단의 기본교육기관 조정안에 대한 동국대학교 불교대학 학사운영위원회 입장’ 제하의 입장문을 통해 “현대 사회에 적합한 승가교육 방향을 모

색해은 동국대 불교대학을 종단 승가 기본교육기관에서 배제하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동국대 불교대학장 계환 스님은 “교육원의 기본교육기관 조정안 발표로 인해 동국대 불교대학 입학생 모집 등 학사행정에 심한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만큼 교육원에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동국대 불교대학은 학사운영위원회 명의로 교육원 안 반대 입장을 담은 공문을 교육원에 접수하는 것을 시작으로 교육원 안이 철회될 때까지 항의방문 등 행동 수위를 높여갈 예정이다.

이에 대해 교육부장 법인 스님은 “교육원과 동국대 불교대학, 석림동문회 구성원 모두가 승가교육이 발전해야 한다는 기본에는 이견이 없는 만큼 이번 입장 발표를 반발보다는 발전이라는 틀에서 받아들여줬다”며 “대화로 원만히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조동섭 기자

# 20일 시한 정해 사퇴하라 압박

## 불교단체 영담 스님 퇴진 위한 특위 구성

조계종 총무부장 영담 스님의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에서의 4대강 지지 성명 참여를 두고 불교단체가 스님의 퇴진 운동을 위한 별도 기구까지 구성했다.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청정승가를 위한 대중결사, 불교환경연대, 교단자정센터, 경제정의실천불교연합 등 불교단체들은 7월 28일, 8월 2일 등 차례 회의를 거쳐 ‘영담스님 총무부

장 사퇴와 종단공직윤리 강화를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 구성을 결의했다.

특별위원회는 불교단체들이 4대강 문제와 조계종 총무부장 영담 스님 사건 등 종단 내부의 문제를 엄격히 분리해 대응키로 합의에 따라 구성됐다. 특별위원회는 8월 3일 ‘조계종 총무부장 영담 스님의 최근 각종 주장에 대한 우리의 입장’ 제하의 입장문을

통해 영담 스님이 7월 13일 발표한 성명에 대해 조목조목 재차 반박했다. 이어 8월 20일까지 영담 스님이 총무부장직에서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특별위원회가 영담 스님의 사퇴 요구사항으로 정한 8월 20일은 불교연대의 ‘4대강 개발 중단을 위한 제2차 기도대진’ 일주일이다.

특별위원회는 입장문에서 “4대강 생명살림 불교연대의 4대강 사업 반대운동과 별도로 종단 주요 소임자가 공인의 자격을 망각하고 종도의 뜻과 의지를 반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처하겠다”며 “영담 스님이 8월 20일까지 사퇴하지 않는다면 원로대덕 큰스님 및 총무원장스님 방문, 광고 및 홍보물 제작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우리의 입장을 관철시키겠다”고 밝혔다.

총무부장 영담 스님은 ‘불교신문’과의 인터뷰(8월 3일자 보도)에서 “종단 내부문제에 외부인사를 초빙한 것은 진정성에 문제가 있다”며 “이교도들이 참여한 단체(불교환경연대)에서 종단 소임자의 사퇴를 거론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특히 스님은 불교단체가 자신의 퇴진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조동섭 기자

# 광주 무각사 선례 줄이어야

## 1면에서 이어

상무대 군법당이었던 광주 무각사주지 청하의 경우 1997년 광주시 택지개발로 상무대가 이전하며 송광사에 관리 운영되는 조건으로 광주시에 무상 이전됐다. 이후 무각사에서 연간 1억 4000만원의 임대료를 냈으나 사찰 특성상 보수 등 관리차원의 문제가 발생했다.

결국 지난 5월 인수계약을 거쳐 송광사로 인수된 무각사는 최근 도심 포교당이자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고 있다.

군종교구는 2006년부터 1사찰 1법당 자매결연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2010년 주요사업으로도 자매결연을 채택해 군포교 활성화를 이끌고자 하고 있다. 군포교 현장에서는 광사가 관리 운영되는 조건으로 광주시에 무상 이전됐다. 이후 무각사에서 연간 1억 4000만원의 임대료를 냈으나 사찰 특성상 보수 등 관리차원의 문제가 발생했다.

결국 지난 5월 인수계약을 거쳐 송광사로 인수된 무각사는 최근 도심 포교당이자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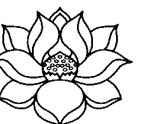
조동섭 기자

부채남 사찰 환수특위(위원장 주경)를 구성한 바 있다. 실태조사에 나선 환수 특위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올 9월 다시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환수특위는 불교계가 기부 체납한 사찰을 우선적으로 조사해 이에 관한 대책을 수립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직 결속만 단계지만 종단의 군내 삼보정재 관리에 대한 움직임은 환영할 만하다. 수많은 불자들의 노력과 따옴으로 이뤄진 군 내 삼보정재, 군포교 활성화를 넘어 이에 대한 보전과 활용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노덕현 기자



문체부 인가 : 제 2010-17호  
법인등기번호 : 234121-0001430호



# 한국불교 연화조계종 창종 선언문

석가세존의 자각각타하신 각행원만의 근본교리를 봉체하고 교외별전, 불립문자, 직지인심, 건성성불, 전법도생함을 중지로 삼고 오탁약세를 정화하고, 불국정토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시대적 사명을 다함으로써 불조의 혜명을 영원히 전등함과 동시에 법통을 수호하고자 사단법인 한국불교 연화조계종 창종을 선언한다.

◆ 본 산 : 경남 양산시 하북면 용연리 659번지  
천성산 대인사 ☎ (055)375-2076

◆ 총무원 : 포항시 북구 죽장면 입암리 474번지  
구암산 구운사 ☎ (054)231-3101

※ 종도들의 입증을 환영합니다 ※ 금년 연말까지 본종에 입증하는 사찰은 입증비 등 제 공과금을 받지 아니함을 알립니다. (입증서류는 본종 소정양식)

불기 2554년 7월 23일

(사) 한국 불교 연화조계종 총무원장 무학 보월 합장

